

#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김 호 민(중앙대 강사) · 박 정 윤(중앙대 부교수)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되고,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부부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부부관계는 결혼만족도를 관계를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연구들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변인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변인간의 상관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분석하고 있다. 개인적 변인과 부부관계 변인의 상호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상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미미하며 기혼남성 대상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특성 변인과 부부관계 특성 변인 중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세 이상의 전 연령층의 기혼 남성이다. 자료 수집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부 쌍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9년 12월 11일부터 2010년 1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직접 혹은 우편, 그리고 e-mail을 이용하여 총 부부 250명에게 배포되었고, 그 중에서 196명의 자료가 수거되어 최종 186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변인들의 경향성을 종합하면 본 연구대상자인 기혼남성들은 비교적 현재 자신의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지각하고 만족도도 높아서 결혼유지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대안의 비교수준에 대한 변인에서 결혼에 대한 대안 인지수준이 낮고, 결혼해체방해 요인에 대한 지각이 커서 지금의 결혼생활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가 교환이론적 관점을 적용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던 가정들이 부분적으로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환이론에서 대안의 비교수준을 통해서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는 가설에서 기혼남성들은 현재와 대안을 비교함에 있어서 대안에 대한 기대나 보상을 크게 지각하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결혼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혼남성 변인을 선정하여 구조모형에 투입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본 결과, 모형 적합성 측정치는 Chi-Square = 6.488(df=5), p=.262였고, 모형의 증분적합도는 NFI=.986, IFI=.997, TLI=.975, CFI=.997, RMSEA=.040로 나타났다. 본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일반적인 평가기준인 지표들과 비교할 때 모두 충족하여 적합한 모형임이 입증되었다.

셋째, 부부관계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결혼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라는 것은 개인적 특성과 가족적 특성과 같은 주변적 요인이 아니라 부부의 상호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호지지와 갈등회복을 위한 노력들, 상호의 유사성의 지각 등이 만족스러운 결혼으로 인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관계 요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